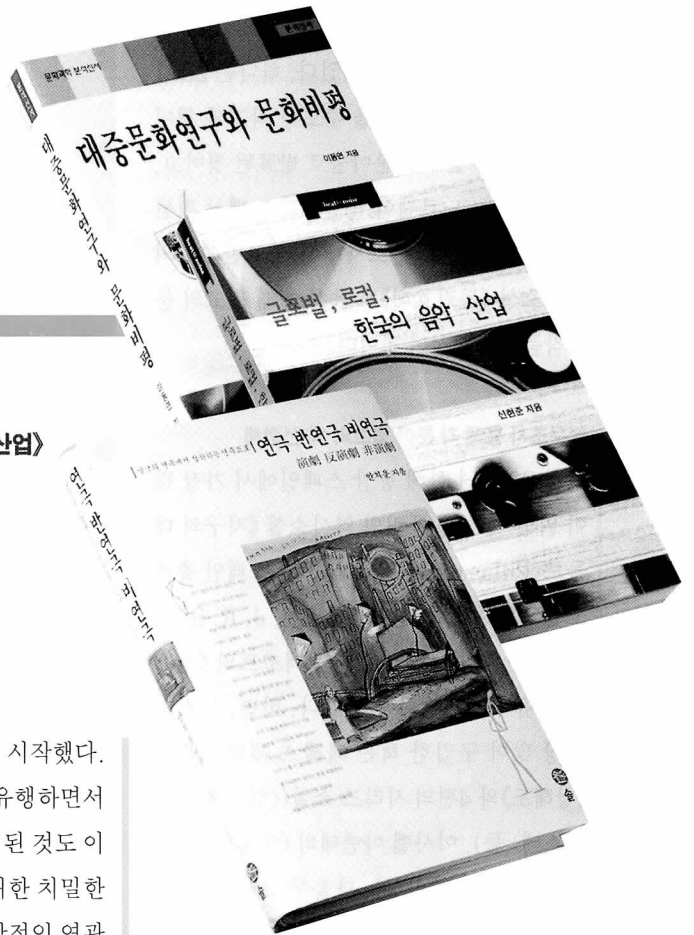


1990년대 한국 문화담론의 성과와 한계 담은 문화연구서들

《대중문화연구와 문화비평》의

권경우 | 문화평론가

이동연의 《대중문화연구와 문화비평》은 현실과 이론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1990년대 문화담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신현준의 《글로벌, 로컬, 한국의 음악 산업》은 경제학을 문화연구에 도입해 문화연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안치운의 《연극 반연극 비연극》은 이론과 비평의 경계를 넘나들며 연극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이들 문화연구서들은 1990년대 문화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담아내면서 문화연구의 독특한 지점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1990년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문화담론'의 등장이었을 것이다. 굳이 '문화'가 아닌 '문화담론'이라고 표현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1990년대를 전후로 대중문화의 팽창과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문화 영역이 급격하게 확산됐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문화 자체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담론이 등장하고 '유행'에 이른 데는 저 아래 가라앉아 있고 감춰져 있던 문화를 '발견'했다는 점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 이전까지는 모든 사회적 현상을 정치적 영역으로 수렴하고 판단한 반면, '문화정치적' 사고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그에 따른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적절한 듯했다. 정치, 경제 영역과는 별개로 일상이라는 영역이 항상-이미 있어왔고, 그 가운데 인간의 욕망과 즐거움은 외부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구체적인 삶 속에 엄연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통 문화담론은 문화비평, 문화분석, 문화연구 등이 뒤섞여 있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됐다. 1990년대 초반 문화담론을 주도한 이들은 대부분 1980년대 문학예술운동을 주도했던 이들이면서 동시에 현장 활동보다는 글

쓰기로서 담론적 실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10대 비평'이라는 저널비평이 유행하면서 많은 '문화평론가'들이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문화 영역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나 정치, 문화, 경제의 복합적인 연관 관계를 드러내는 작업보다는 대중문화의 확산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문화 현상을 읽어내는 데 급급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살펴볼 세 권의 책은 (넓은 의미의) 문화연구 차원에서 각각 독특한 지점에 위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현장에서 문화 접근해 이론과 현실 거리 좁혀

이동연의 《대중문화연구와 문화비평》은 1990년대 유행으로서 문화담론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어 '문화연구' 작업에 가장 근접해 있다. 지은이가 이전에 발간한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들》과 《서태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이상 문화과학사) 등을 염두에 둔다면 이번 책이 완전히 새로운 작업은 아니다. 다만 문화연구라는 틀 내에서 인식의 폭이 확장됐고 이론과 현실의 거리가 좀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거리는 지은이의 고민이 진전됐다는 증거다. 그는 주로 이론 작업에 치중하면서 분석 작업 역시 현실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이동연 지음
문화과학사/A5신/374면/13,000원

신현준 지음
한나래/A5신/282면/12,000원

안치운 지음
술/A5신/412면/28,000원

이론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과정으로 파악했는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라는 시민운동단체에서 지난 2년여 동안 일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일반 대중과 문화 현상이라는 좀더 가깝고 낮은 곳에서 문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의 글쓰기는 좀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물론 제도적 개입으로서 정책 연구가 때로는 비평적 글쓰기나 이론적 참여함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는데, 문화산업과 상품미학의 관계, 한국의 문화연구 과정과 문화운동의 과제, 문화자본 속에 감춰진 이데올로기, 욕망과 검열, 세대문화 등 동시대 문화적 차원에서 손쉽게 다루기 힘든 주제들

이 담겨 있다. “나의 글쓰기는 문화연구, 문화 정책, 문화운동을 함께 사고하고 각각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싶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지은이는 말한다. 문화에 대한 이론적 실천이 제도적 개입을 일궈내고,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문화운동을 생산하는 과정의 ‘지도 그리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은이의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그것은 이 책의 한계로 그대로 드러난다. 개인의 욕망과 공동체의 인식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는 여전히 화두로 남는다.

경제학 도입으로 문화 연구의 폭 넓혀

앞의 책이 문화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면, 《글로벌, 로컬, 한국의 음악 산업》(한나래)은 문화산업이라는 좀더 구체적인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지은이 신현준은 경제학자보다는 대중음악평론가 혹은 문화평론가로 더욱 친숙하다. 이 책은 경제학 박사학위논문을 출간한 것이다. 자신의 말마따나 절대로 박사학위논문은 안 쓰거나 못 쓸 것 같더니만 어느새 지난해에 학위를 받았다고 한다. 우선 학위논문을 통한 이런 시도가 용인됐다는 점만으로도 지난 시기의 변화된 사회상과 아카데미 풍토를 반영하는 듯하다. 경제학이라는 학문 영역을 도입해서 한국의 음악 산업을 분석함으로써 ‘문화연구자’로 자리매김한 점에 박수를 보낸다.

책의 주제는 ‘한국 음악 산업의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특히 1980년대 말 이후 음악 산업의 변화와 특징들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 지은이는 현대계 음악 산업이 양적 성장, 국내 음악 중심, 소규모 기업 중심이며, 이런 점이 불균형성, 전근대성, 비전문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낳는다고 본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지은이는 ‘음악 산업 시스템’과 ‘지구화(globalization)/국지화(localization)’ 개념을 내놓는다. 여기서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시장 조직’이라는 단순한 개념과는 달리 제도과 관행 등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영역

“이 책들은 현시점에서 1990년대 한국의 문화담론, 혹은 문화연구가 남긴 성과와 한계를 엿볼 수 있는 것들이다. 1990년대 문화담론은 문화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대중 문화라는 특정 영역으로 편향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했던 장르 예술에 대한 비평과는 상당 부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를 통해 경제 결정론과 문화 결정론, 즉 정치경제학과 문화 연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양자를 가로지르는 작업을 한 것이다. 아울러 ‘지구화/국지화’는 세계의 동질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분균등하고 이질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 착안해, ‘로컬 = 일국’이라는 암묵적 전제를 의문시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음악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논문 형식의 글쓰기가 거의 바뀌지 않은 탓인지 책 읽는 재미는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연극의 현실 날카롭게 비판해

앞의 책들이 그야말로 새롭게 등장한 대중문화, 문화산업 등을 다룬 것이라면, 《연극 반연극 비연극》(솔)은 전통적인 장르 예술 가운데 하나인 ‘연극’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견 이 책들은 함께 다루기에 어색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책의 부제는 ‘날것의 연극에서 철학하는 연극으로’. 지은이 안치운은 제대로 된 연극을 위해서는 이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랫동안 연극평론 작업을 해왔던 지은이로서는 한국 연극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정이 때론 날카롭게, 때론 따스하게 담겨 있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연극, 몸, 자연’이라는 부제를 달고서 연극을 중심으로 연극 비평, 철학, 자연, 몸 등을 화두로 삼으며, 다른 하나는 일종의 작가론이다.

그의 ‘글쓰기’는 우리 시대 연극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부터 문예진흥기금 지원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까지 아우른다. 그들은 결코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헛되고 헛된 것이 오늘날 연극일 듯싶다”고 말한다. 연극 비평 또한 ‘남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역설이 존재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각종 국제, 국내 단위의 연극제가 많아 공연은 계속됐지만 관객은 없고 좋은 작품이 없는 현실이 그것인데, 연극 비평은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공연과 비평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게 지은이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이 책의 주장은 여전히 출발선을 갓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안치운의 글은 이론과 비평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는 속삭이듯이, 애무하듯이 글을 쓴다.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지은이의 정성을 느낄 수 있다. 그의 힘이다. 그런 글 속에 그는 칼을 품고 있다. 어느 순간 실명 비판까지 개의치 않는 과감함을 보여주는 것도 그의 치열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다룬 책들은 현시점에서 1990년대 한국의 문화담론, 혹은 문화연구가 남긴 성과와 한계를 엿볼 수 있는 것들이다. 1990년대 문화담론은 문화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대중 문화라는 특정 영역으로 편향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했던 장르 예술에 대한 비평과는 상당 부분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연구가 기본적으로 학제간 연구에 기초를 둔 통합학문을 지향하면서도 장르 예술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개별 장르 예술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 걸까. 둘의 관계가 조금은 가까워진 듯하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다. ■

권경우씨는 현재 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이고 무크지 《모색》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학문화의 생성과 탈주》《문화사회를 위하여》(이상 공저) 등을 펴냈고 《하위문화는 저항하는가》(공역) 등을 번역했다.